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참 고</div>		 금융감독원
<b>보도</b>	<b>2018. 6. 12.(화) 12:00부터</b>	<b>배포</b>	<b>2018. 6. 12.(화)</b>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윤 덕 기 사무관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(02-2100-2836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(02-2100-2990)		양 병 권 사무관(02-2100-2992)
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현 지 은 사무관(02-2100-2964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진 석(02-3145-8020)		김 부 곤 팀장(02-3145-8040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이 준 교 팀장(02-3145-7455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6770)		박 형 근 팀장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		정 용 걸 팀장(02-3145-7447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 진 호(02-3145-8070)		이 길 성 팀장(02-3145-8072)

## 제 목 :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- ☐ 금년 5월중 **소 금융권\***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**+6.8조원**으로  
전년 동월(+10.0조원)대비 **△3.2조원** 축소

\* 금융감독원 감독·검사대상(은행, 보험사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전사) + 새마을금고

- 은행권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**△1.0조원**, 제2금융권은 **△2.2조원** 축소되는 등 **소 금융권이 안정화**  
(은행 +6.3조원→+5.3조원, 제2금융권 +3.7조원→+1.5조원)

- ☐ '18년 1~5월중 증가규모는 **+27.4조원**으로 전년 동기(+32.5조원)  
대비 **△5.1조원** 축소(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4% 수준)

□ (개 요) '18년 5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+6.8조원 증가하여 전월(+7.3조원) 대비 △0.5조원 축소되었으며, 전년 동월(+10.0조원) 대비로도 △3.2조원 축소

○ '18년 1~5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+27.4조원으로 전년동기(+32.5조원) 대비 △5.1조원 축소되었으며, 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(+15.6조원 → +7.4조원, △8.2조원)

□ (은행권) '18년 5월중 증가규모는 +5.3조원으로, 전월(+5.1조원) 대비 +0.2조원 소폭 증가한 반면, 전년 동월(+6.3조원) 대비 △1.0조원 감소

○ (주담대 : +2.9조원) 집단대출 증가로 증가폭이 전월(+2.5조원) 대비 +0.4조원 확대되었으나, 전년 동월(+3.8조원) 대비 △0.9조원 감소

\* 은행권 개별대출(주금공 양도포함) 증감(조원) : ('18.4월) +1.4 → (5월) +1.2

\*\*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(조원) : ('18.4월) +1.0 → (5월) +1.7

○ (기타대출 : +2.5조원) 신용대출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, 기타대출 전체 증가규모는 전월(+2.7조원) 대비 △0.2조원 축소되었고, 전년 동월 증가규모(+2.5조원)와는 유사한 수준

\*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(조원) : ('18.1월) +0.9 → ('18.2월) +0.1 → ('18.3월) +0.4 → ('18.4월) +1.3 → ('18.5월) +1.8

□ (제2금융권) '18년 5월중 +1.5조원 증가하여 전월(+2.1조원) 대비 △0.6조원, 전년 동월(+3.7조원) 대비 △2.2조원 감소

① (상호금융) '18.5월중 +0.4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(+0.8조원) 대비 △0.4조원, 전년 동월(+2.3조원) 대비 △1.9조원 축소

- ② (보 험) '18.5월중 보험계약대출(+0.4조원) 중심으로 +0.4조원 증가하여 전월 및 전년 동월(+0.4조원)과 유사한 수준
- ③ (저축은행) '18.5월중 +0.1조원 증가하여 전월(+0.3조원) 및 전년 동월(+0.2조원) 대비 각각 △0.2조원, △0.1조원 축소
- ④ (여전사) '18.5월중 카드대출(+0.5조원)을 중심으로 +0.6조원 증가하여 전월 및 전년 동월(+0.7조원)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(△0.1조원)

< 가계대출 증감 추이 (금감원 속보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

	'16년 (1~5월)	4월	5월	'17년 (1~5월)	4월	5월	'18년 (1~5월)	4월	5월
은 행	+21.8	+5.2	+6.7	+16.9	+4.6	+6.3	+19.9	+5.1	+5.3
제2금융권	+17.0	+3.8	+5.3	+15.6	+2.6	+3.7	+7.4	+2.1	+1.5
상호금융	+9.9	+2.6	+3.1	+9.9	+1.9	+2.3	+1.0	+0.8	+0.4
신 협	+1.33	+0.23	+0.41	+0.70	+0.12	+0.17	△1.37	△0.20	△0.26
농 협	+5.33	+1.47	+1.73	+4.20	+0.70	+0.85	+2.22	+0.90	+0.71
수 협	+0.07	△0.02	+0.05	+0.22	+0.06	+0.09	△0.28	△0.08	△0.05
산 립	+0.11	+0.04	+0.04	+0.21	+0.05	+0.05	+0.26	+0.07	+0.06
새마을금고	+3.03	+0.83	+0.90	+4.57	+0.93	+1.12	+0.18	+0.07	△0.05
보 험	+2.5	+0.4	+0.7	+2.1	+0.3	+0.4	+1.9	+0.4	+0.4
저축은행	+2.2	+0.4	+0.4	+1.6	+0.3	+0.2	+0.8	+0.3	+0.1
여 전 사	+2.5	+0.4	+1.0	+2.0	+0.2	+0.7	+3.8	+0.7	+0.6
全금융권 합계	+38.8	+9.0	+11.9	+32.5	+7.3	+10.0	+27.4	+7.3	+6.8

주 :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,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'18.5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(+6.8조원)는 전년 동기(+10.0조원) 대비 크게 축소되었으며, 주담대 위주로 감소\*하는 모습

\*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: ('17.5월) +5.2조원 → ('18.5월) +2.5조원  
全 금융권 기타대출 증감 : ('17.5월) +4.7조원 → ('18.5월) +4.3조원

○ 주담대 증가규모 감소는 新DTI('18.1.30일), DSR(은행권 시범운영, '18.3.26일) 등 주담대 규제강화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

○ 한편, '18년 1~5월 중 증가규모(+27.4조원)는 '15~'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\*으로, 누적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향

\* ('15.1~5월) +31.6 → ('16.1~5월) +38.8 → ('17.1~5월) +32.5 → ('18.1~5월) +27.4 (단위: 조원)

□ 향후에도 현재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既 발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

① 저축은행, 여전사 등에 대한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('18.10월)으로 고정금리·분할상환 주담대 활성화 적극 유도

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,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,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\*로 도입

\* 업권별 도입시기 : (은행) '18.3월, (상호금융) '18.7월(예정)

③ 금년중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(상호 금융 7월, 저축은행·여전업권 10월)

□ 또한,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·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지속 추진

① 그간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 온 정책\*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

\* 최고금리 인하, 연체금리 인하, 원금상환유예, 담보권 실행 유예 등

②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·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('18.下) 후, 점진결과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넓게 들었습니다  
바르게 알리겠습니다